

한미FTA협정과 기독교윤리의 과제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
- III. 경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자세
- IV. 결론

• **ABSTRACT** •

First, we should look at this treaty and its related issues from a wider perspective. It is true that various theological and ethical analyses need to be attempted, and yet an economic analysis and evaluation should come first. In fact, the FTA itself can be considered value neutral. The issue is how we can accept and develop the treaty. We should avoid both an overly optimistic attitude and excessive criticism.

Second, as far as the negative effect of the treaty is concerned, pastoral care and consideration of the minorities in Korean society are required. Korean churches should actively engage in pastoral care of those who would suffer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the treaty. Above all, farmers and fishermen are expected to be hit hardest by the treaty, and it will adversely affect many churches and ministries in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Third, the negative effect of the Korea-U.S. FTA should be taken to urge Korean churches to make more efforts at evangelism and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A continuous critical reflection on materialism and technology can be seen as an important task of Christian ethics. In face of the rapid change of human society (as in the FTA era), an appropriate Christian view of materialism and vocation should be redefined and reconfirmed. Since their old, invalid understanding cannot be valid any more, a new paradigm of redefined worldview is necessary for Korean churches to make a ultimat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ll global Christian churches.

Keywords: pastoral care, minorities, Korea-U.S. FTA, Korean churches, materialism, vocation, global Christian

I. 서론

오랜 진통 끝에 한미 간 자유무역 협정이 지난 2007년 4월2일 타결됨으로써 한미간의 경제와 무역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았고 실제적인 발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양국의 관계는 경제적인 분야 뿐 아니라 제 분야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 협정은 정치, 경제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대부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이기에 교회 또한 이를 관심 있게 주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체결은 곧 주변 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했으며, 우리가 세계화된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 주고 있다. 그런데 막상 체결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 및 교단들은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¹⁾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기독교 및 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협상 결과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나 정치화에는 여러 학자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있다.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과장, 왜곡되어 정보 및 예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칼럼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안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개방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언론과 지식인들이 FTA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가 지금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기독교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된다.³⁾ 지극히 고전적인 주제가 기기도 한 사회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한번 한국 기독교는 책임적인 결정과 태도를 요청받고 있다. 역사적인 순간 기독교가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를 잃고 사회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도 외면 받게 된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경제 문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나 경영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인 문제이지만 그 이용에 따라서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일종의 가치지향적인 혹은 도덕적인 특성이 있다. 인격성에 관한 논의는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기업체 등 조직의 인격성과 윤리성에 관한 논의를 시도한 사람도 있으며, 구원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라하더라도 기업체의 경우 잠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실재로 볼 수 있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들의 노력과 관심에 의해서 기업은 윤리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⁴⁾

-
- 1) 한국기독교공보 2007년4월7일자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신중한 기독교”라는 제목하에 대부분의 교단들이 논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거대시장에 적극적인 개명을 선택한 용단을 환영한 것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농민들과 양극화의 위험에 처한 이웃들을 향한 책임과 보장이 선결되어야함을 강조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 2) 송의영, 조선일보 2007년4월20일자, 35면 칼럼 참조.
 - 3) 2007년4월20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대인교수, 우석훈박사, 최형목 목사 등이 양극화의 확대 우려, 생태계에 주는 충격 고려,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에 대한 경계 등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필자는 “한미FTA 문제에 대해 인문, 예술, 종교 분야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 등에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놓치게 되면 논의가 공허한 이념 논쟁화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 4)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yical Economy*, Eerdmans, 1987, pp.131 - 132.

데이비드 크루거(David Krueger)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경제 체제와 경영 조직들은 우리 삶의 구조와 내용을 제공하여 준다. 인간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경제 체제와 제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체제와 제도들은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쁜 결과들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은 우리의 선택 또는 직업과 관련된 성격을 형성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비전을 가능하게도 하고 삶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⁵⁾

한미 FTA협상 체결과 관련하여 여러 면에서 교회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겠으나, 본 글은 협정 체결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점검해 보고, 신학의 공공성⁶⁾과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대응과 책임을 기독교윤리적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

먼저, 우리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나서게 된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미 간의 교역은 중국 등 신흥 경제 강국과의 경쟁에 있어 양 쪽 모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 출입 의존도가 70%가 넘고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고는 국부를 창출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06년말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별로 체결된 FTA협정은 211개라고 한다. 김태황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FTA협상이 자유무역주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여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1) FTA는 자유무역주의를 효율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상에 의존한다. 2) 추진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WTO협상이나 EUDHK 같은 지역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나라 간 협상과는 다르다. 3) 다자 간 협상에 비해 협상 과정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상대국의 선별이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5) 자유무역주의의 무임승차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자 간 협상이나 복수국 간 협상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6) 세계 경제의 완전 개방화에 대비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7)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협정을 소화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지역주의의 함정을 극복하고 지구촌 경제의 공동 발전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연결망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교환과 나눔의 시장 확대로 경제 협력 공동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의 확산은 향락 문화의 전파와 함께 물질주의화 및 배금주의 등으로 신앙의 덧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⁸⁾

5) 임성빈 옮김. 데이비드 크루거 지음.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p.40 참조.

6)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있는 여러 학자 중 스탠포드대가 주창한 ‘공적신학’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번 논의를 전개하게 되었다. 그는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NICE)의 초청으로 올 해 10월 방한할 예정이며, 그의 제자인 장신대 교회와사회연구원 이상훈박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7) 김태황, 목회와 신학 “한미FTA협상 타결을 바라보는 시각” 2007년 5월호 pp.229-230 참조.

8) 위의 글, p. 234 참조.

대다수 긍정적인 평가와 언급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과 다르게 ‘기독교대책 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대인 교수는 자동차 관세부분과 의약품 부분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관세 인하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특히 3,000cc 이하 자동차의 관세를 철폐했다고 하는데 그 대가로 우리의 법과제도를 바꿔야하고, 대형차의 소비가 올라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야기된다.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분야의 주도권은 아예 다 내줬다.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5년 간 6,000억에서 1조 원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우석훈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무역규모가 커지면 지구생태계에 충격을 준다. 지역의 상품을 지역이 소비하면 문제가 없지만 무역을 하면 상품의 이동거리 및 규모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것이 1차적 충격이다. 또 멕시코처럼 소농과 공유지 시스템의 붕괴를 통해 소농이 무너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생태계의 붕괴도 따르는 2차 충격이 예상 된다”고 했다. 환경이나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 기독교는 그 어느 집단보다도 예민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태계를 살리는 길은 일정 수준의 경제력과 성장을 확보할 때 가능했음을 대부분의 나라가 보여 준 바 있다.

최형묵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는 신앙의 국민화와 민족화를 지고의 가치를 받아들인다. 특히 보수주의 기독교 안에서 ‘민족주의+국가주의’는 신앙 담론과 결합하여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익 담론과 결합해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기독교 신앙 담론이 민족주의 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늘 뒷전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9) 기독교 신앙의 담론이 민족주의의 영역과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데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민족주의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FTA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FTA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경제의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이해하고 풀어야 할 것이다. 제기되는 우려는 쇠고기 시장 개방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제약 업계 피해 등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반대 진영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만한 대목도 없진 않지만 피해를 과장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도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요 문제를 정리 해 본다. 1)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는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하는가? 이 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국제 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한미 FTA에서 ISD를 도입하되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ISD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한미 FTA로 신약 특허 기간이 연장되면 국내 시장의 미국 신약 의존도가 높아지고 복제약 시판도 늦어져 제약업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추산한 제약업계의 피해 규모는 연간 2조 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는 연평균 570억~1,000억 원 정도로 의약품 업계의 매출액이 모두 11조 원이므로 1,000억 원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3) 무역 구제(반덤핑 개선 조치 등) 절차 개선에 있어서의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끼쳤는지를 판정할 때 한국 제품과 다른 나

9) 이상 3인의 견해는 ‘뉴스앤조이’ 2007년 4월 20일(금) 기사에서 재인용하였음.

라 제품을 합산해 평가하는 조사 방법을 금지해 달라는 ‘비합산 조치’는 관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이 비합산 조치를 포기하면서 FTA 반대론자들은 협상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무역구제 분야를 꼽고 있다. 그런데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한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비합산 조치를 관철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경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자세

교회의 책임과 자세를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왜 교회가 경제 문제에 대하여 답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본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설명한다. 1)기독교윤리는 반드시 공적인 사안들을 언급해야 한다. 2)기독교인들은 공적 부분에 대해 책임있게 말해야 하는데 신장들에게만 적용되는 윤리가 아니라 불신자들과도 토론되어지며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책임있는 것이어야 한다. 3)기독교윤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영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체계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즉 가족, 기업, 의료, 언론, 예술 등에 있어서 현실적이면서도 자비로운 방법으로 시민사회를 건설해가는 종교윤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¹⁰⁾

첫째로, 이 협정 및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 협정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차원의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은 필요하나 일차적으로 경제학적 해석과 그 수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협정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문제일 것이다.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가는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긍정적인 확신에 찬 장밋빛 환상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비판일색의 어두운 전망 만을 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과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가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그러하기에 완전성을 갖고 논할 수는 없으며 비교우위를 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스택하우스는 기업과 관련된 경제제도를 크게 셋으로 나눈 바 있다. 첫째는, 국가주도형의 기업형태가 있는데 사회주의 경제나 파시즘의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 둘째는, 엘리트 가문이 기업을 주도하는 제3세계 형으로 족장 중심적인 형태나 카스트제도 등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셋째로, 자본주의는 기업을 국가나 특정한 가문 등에서 분리시킨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형태이다. 적어도 이 형태는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유산을 극복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근본적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분배가 주는 공허함을 우리 사회도 실감한 적이 있지 않은가?

물론 이 협정으로 인해 일종의 희비가 업종에 따라서 엇갈리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산업인 농수축산업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찾아온 개방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추후 회복할 수 없는 퇴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교훈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번 협정과 관련한 평가도 한 두 분야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 거시적인 시각을 잃게 된다. 소수자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

10) 스택하우스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공적신학’에 대해 그가 ‘목회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목회자신문’ 2005년 4월 20일자 참조.

한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질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땅에 대한 부담감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며,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서적인 차원과 식량 안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산업 체계 전반에 대한 좀 더 획기적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소명(vocation)의 문제를 기업이라는 특수한 조직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모든 조직은 발생될 때부터 갖고 있는 바람직한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소명은 무엇인가? 교회와 학교 만이 아니라 기업체나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명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¹¹⁾

둘째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목회적 돌봄이 요청된다. 공존 할 수 없을 것 같던 경영과 윤리란 말이 잘 어우러져서 ‘윤리경영’이 여러 면에서 강조되고 있다.¹²⁾ 물론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이라기 보다는 경영의 방편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위치와 맥락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돌봄의 윤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도 있다. “여성주의 윤리학은 일관되고 정합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 무엇이 행해져야 하고 무엇을 우선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일관된 체계를 통해 판결될 수 없으며, 같은 사안이라도 그것이 위치한 맥락에 따라 그 속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행위를 도덕적인 것이라 보아야 하는가, 또는 어떤 식의 사고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가를 결정해 줄 도덕의 본질 또는 도덕의 필연성을 상징하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는 접근 방법이다.”¹³⁾

나아가서, 목회적 차원에서 이번 협정과 관련된 피해의 당사자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목회적 돌봄이 요청된다. 특히 대부분의 농어촌지역 및 축산농가 등이 일차적인 피해 대상으로 보이는데, 한국교회의 비중 중 농촌이 차지하는 역량이 또 한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 정책이나 선교적인 지원에 대한 평가를 보더라도 무조건 물질적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동기의 제공이 요청된다.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우리에게 ‘관심과 돌봄’의 강조가 그러하기에 필요하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일반적 구원”(The General Deliverance)과 “인간의 타락”(On the Fall of Man)에서 우주적 성화의 개념을 역설 하였다. 인간은 우주 만물 중에도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Political image of God)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나고 성화되며 완전성화를 추구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경제의식도 새로워져야 한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으로 구원받은 것은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여 모든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회년사회의 건설을 위해 돈과 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
- 11)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yical Economy*(Grand Rapid: Eerdmans), 1987, p.133.
 12) 기업에 윤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용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윤리는 자발적인 활동을 지배하므로 기업에도 윤리가 적용된다. 2)기업에 개입된 사람과 주변 공동체가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3)윤리적 사고는 기업이윤과도 관련된다. 4)사람들은 기업이 정의롭고 공정하면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옮김, 마누엘 벨라스케즈 저, 『기업윤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2), pp.54 - 60을 참고하였다.
 13) 허라금 지음, 『원칙의 윤리에서 여성주의 윤리로』,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p.264.

뜻이다.¹⁴⁾

웨슬리의 성화론은 경제적 성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경제적 청지기 의식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청지기 의식으로 경제적 성화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성화 은총의 수단(means of grace)중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청지기 의식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give all you can)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¹⁵⁾

셋째로, 이번 협정을 선교적 차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볼 필요가 있다. 물질과 기술문명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과 지속적인 반성은 윤리학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 물질관과 직업소명관은 분명한지 변화의 계기를 맞아서 재점검해야 한다. 평생직업은 가능해도 평생직장은 불가능한 지식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구시대적인 발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향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화는 이념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전개 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물질을 부정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과 물질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묘사되고 고백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물질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근원적인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재산의 소유와 사용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물질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 생겨난 이단 사상들이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⁶⁾

성경이 가르치는 규모 있는 경제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자기 자신과 노부모님을 포함한 자기가족의 생계를 책임 있게 공급하며(살후3.6-15, 딤후5.8), 나아가 자녀교육과 불의의 사고를 예비한 저축(고후12.14, 딤후3.14)과 구제 및 현금(엡4.28, 행20.33-35), 그리고 각종 세금(마22.21, 17.24-27, 롬13.1-7)등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근로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고 살거나 무책임하게 노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심지어 충분한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근로하지 않는 것은 규모 있는 경제생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의 생계를 확보하고 나아가 많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도록 추가근로를 해야 한다.¹⁷⁾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 최대의 선교 지원국이다. 여러 나라의 많은 지원과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현재는 가장 왕성하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이제 자유무역 협정 체결은 중국, 유럽 등을 상대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우위 확보 및 세계 각국으로의 활발한 진출은 선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교사만 파송해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명백한 한계를 갖게 된다. 일상 속에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자비량 선교와 다양한 문화와 교역을 통한 선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민족주의 등을 가장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폐쇄성을 극

14) 김흥기 옮김.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 62 참조.

15) 위의 책, p. 97 참조.

16) 예를 들어 마르시온의 사상을 들 수 있다. 그는 세계 및 물질을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경제생활은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스도도 전적으로 영적 용어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였다.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가현설, 영지주의 등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17)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p.129.

복하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결혼 가정 이민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많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를 집착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자긍심과 긍지의 기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일종의 혈통적 소속감에서만 온다면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폐쇄성은 우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연관된 신학적, 목회적 폐쇄성 또한 반성하여야 한다.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다. 이제 세계화의 물결은 선택의 가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 나서는 다음 단계를 요청하고 있다.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는 ‘실천적 무신론’과 ‘반실재론’을 통해서 현대 기술문명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반실재론적 조망의 채택은 힘의 극대화에 종속되는 인간의 삶으로 이어지며 인간이 힘의 추구에 이끌리는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힘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인간과의 연관성 없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슈바이커는 행위와 행위자의 연관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합(Integration)과 통진성(Integrity)이란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¹⁸⁾

기술문명 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힘이 가치의 중심에 있는 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가치중립적이며 객체적인 우주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한다기보다는 가치가 존재론적 실재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또는 공동체가 힘을 사용하는 가운데 창출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우 힘의 극대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가치라는 주장이 가능해져 힘이 가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는 기술사회의 위험한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극복이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과제인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한미 FTA 협정체결과 관련된 기독교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논해 보았다. 협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런 예민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양분화 되었다는 점이다. 특별히 기독교내에서도 양극단의 입장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배아복제 문제 등 생명공학 및 산업과 관련한 문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문제 등에서도 첨예하게 드러났다. 최근에는 사이버 문화의 영향으로 익명의 의견과 댓글 형식의 토론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나 의견 제시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의견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제간의 관계는 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러 힘의 요소들 가운데 경제력은 가장 영향력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생산과 교역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아가 기독교적 삶의 실현과 선교적 과제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제 정서적 부담감이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문제를

18) William Schweiker,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0), p.15.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설명’ 참조.

직시하고,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수반되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데 지혜와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Eerdmans.1987.
-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32.
- 강원돈 옮김. 아르투르 리히 지음. 『경제윤리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김태성·성경룡 공저.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출판. 2003.
- 김흥기 옮김.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노영상 지음. 『기독교와 미래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문시영 옮김. 슈바이커 저.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손규태 옮김. 올리히 두크로 지음.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7.
- 임성빈 옮김. 데이비드 크루거 지음.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 이정석 지음.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 이상률 옮김. 그랜트 맥크래켄 지음. 『문화와 소비』.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이진우 옮김. H. 요나스 지음.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울: 서광사 1994.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옮김. 미누엘 벨라스케즈 저. 『기업윤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2
-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지음.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사회 의식 조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 허라금 지음. 『원칙의 윤리에서 여성주의 윤리로』.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